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4·24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가를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황주홍, 최고위원 도전장

“민주당 전복하고 싶다”... 호남 표심 결집 주목

민주당 황주홍(사진) 의원은 28일 5·4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도전장을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이 고작 1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 현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지금 민주당은 ‘천막 당사’가 10개, 100개 있어도 모자랄 처지 같다”고 민주당의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제가 민중이 있다면 (민주당에 대해) 봉기를 하고 싶고, 부대가 있다면 전복해버리고 싶었기에 초선으로 이 길에 뛰어 들었다”며 “이론적 편향성을 바로잡고, 가법계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태도상의 편향성을 바로잡겠다. 중도개혁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적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당 자신”이라며 “실제 정당을 성공적으로 교체할 때까지 민주당과 싸우고 또 싸울 것이다. 희망의 대열에 함께 서달라”고 호소했다.

강진군수 3선 출신인 황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비주류 세력과 초선 의원으로 분류된다.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는 황 의원이 유일하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호남 표심 결집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는 안민석·양승조·조경태·최재성·우원식·유성엽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38.8% 허준영 32.8%... 노원 병, 예상밖 각축

리얼미터 여론조사...안, 오차범위내 '우세' 속

진보당 김지선 후보와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

4·24 재보선 판세

안철수 전 교수의 정치 복귀 무대인 서울 노원 병 재선거 판세가 심상치 않다.

당초 노원 병 선거 구도는 지난 대선에서 '안풍'을 일으키며 대선 후보로 활약했던 안 후보의 우세가 점차 뚜렷해졌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와 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의 특성에도 안 후보가 정당 조직을 활용할 수 없는 무소속이라는 한계 등을 들어 예상 밖의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단,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선거 초반 판세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무공천 등을 계기로 안 후보의 대선이 형성되기를 기대했지만, 전체적인 판세가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6일 노원병 유권자 70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 ±3.7%p)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은 38.8%로, 32.8%를 기록한 허준영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는 앞섰다. 안 후보로서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판세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허 후보가 '박빙 우세'에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안 후보 캠프는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당장 전국에 산재한 안 후보 지지 조직이 움직이고 있다.

안 후보 측에서는 안 후보가 거의 매일 바다 민심을 다지고 있는데다 노원 병 표심이 그동안 '야성'을 보여 왔던, 전체적인 판세가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노원 병 선거에서는 야권 단일후보인 노회찬 후보가

57.2%를 득표, 승리한 바 있다.

여기에 인사 참사를 일으킨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안 후보의 정계 진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허준영 후보가 예상 밖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보였기에 따라 '한 번 해 볼만 하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당직자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허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허 후보의 “지역일꾼론”과 함께 중앙당 차원의 조직력을 총동원, 안 후보를 꺾겠다는 각오다.

동시에 ‘안철수 거품론’을 집중 제

기하면서 안 후보와의 관계를 의식해 노원 병 무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에 대공세를 이어가는 것도 ‘안철수 대세론’ 자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 후보가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인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어 후보단일화 여부는 초반 판세를 흔들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에 나서는 야권의 행태에 대한 거부감도 일정부분 표출되고 있어 안 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가 곧바로 ‘승리의 열쇠’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진심포럼, 안철수 직접 지원 나선다

범희승·장하경 등 40여명 내일 노원구 방문

광주지역 안철수 지지모임인 '광주 진심포럼'이 4·24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의 선거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안 후보가 새누리당의 허준영 후보와 박빙 우세를 보이는 등 예상 밖 각축을 보임에 따라 이들은 매우 한 차례씩 안 후보의 선거 지역인 노원 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 지원을 하기로 했다.

28일 광주 진심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범희승(전 전남대 화순병원장) 상

임대표와 장하경(광주대 교수)·손재홍(광주시의원) 공동대표 등 진심 포럼 회원 40여 명은 오는 30일 전세버스 1대를 이용해 안철수 후보의 선거 지역인 서울 노원구를 방문한다.

이들은 안 후보의 선거구인 노원구 상계 1·2·3동을 중심으로 호남 인맥 등 적극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또한, 자신들이 만난 지인 명단을 작성해 안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심 포럼 관계자는 “선거지원에

대한 호응이 좋으면 재보선 일인 다음달 24일 이전까지 매주 안 후보의 선거구를 직접 방문해 지원에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앞으로는 포럼 회원들의 참석자를 늘려가며 안 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 진심 포럼 회원 100여명은 지난 14일 국립공원 무등산을 등반한 뒤 인근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어 향후 포럼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안 전 교수의 선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내현 “광주시당위원장 합의를 추대 노력”

차기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한 임내현(광주 북구 을) 의원은 28일 “시장위원장은 경선보다는 합의 추대로 이뤄지는 게 좋다”며 “합의 추대로 이뤄지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는 포럼 회원들의 참석자를 늘려가며 안 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선 패배 이후 지역민들이 상실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장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선을 벌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박 의원이 먼저 시장위

원장 출마의 뜻을 밝혔고, 경륜 등도 뛰어나신 분이지만, 대선 패배 이후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시장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중앙당에서 윤리위원회, 법률위원회 등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시장을 이끌어 갈 자신이 있어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30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만큼 30일 이전까지 박 의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초장·의원 ‘무공천’

결론 못내린 새누리당

일부 최고위원 반대

새누리당이 28일에도 4·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당내 일각의 반대 때문이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무공천 여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정당의 무공천이 법 제화하지 않는 상황과 공심이 무공천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번에는 무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을 원하는 지역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앞서 심재철·유기준 최고위원 등은 민주통합당이 그대로 공천하는데 새누리당만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선거 패배가 우

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재보선에 중앙당 공천을 예전과 같이 그대로 할 방침이다.

여기에 최고위가 무공천 방침에 반대해도 공심위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을 할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는 해석도 있지만, 제도에 대한 것인 만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이날도 공심위가 공천 후보자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를 바꿀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의견 대립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에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친 후 방침을 정하려 했으나 당시에는 최고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권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분묘개장이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9일

광주지방기상청장

1.공고기간 : 2013. 3. 29 ~ 2013. 5. 29(2개월간)
2.분묘의 위치 : 목포기상대 옆 야산(목포기상대 관측 장소 표준화사업 대상 묘지)
3.개장대상 분묘내역(분묘의 위치 및 장소)

연번	분묘소재지	지목	수량	비고	연번	분묘소재지	지목	수량	비고
1	연산동 726-7	임	1기	No 1	7	연산동 726-6	임	1기	No 7
2	연산동 726-7	임	1기	No 2	11	연산동 726-6	임	1기	No 11
3	연산동 726-7	임	1기	No 3	12	연산동 726-6	임	1기	No 12
4	연산동 726-7	임	1기	No 4	13	연산동 726-6	임	1기	No 13
5	연산동 726-7	임	1기	No 5	14	연산동 726-6	임	1기	No 14
6	연산동 726-7	임	1기	No 6	15	연산동 726-6	임	1기	No 15
8	연산동 726-7	임	1기	No 8	27	연산동 726-6	임	1기	No 27
9	연산동 726-7	임	1기	No 9	28	연산동 726-6	임	1기	No 28
10	연산동 726-7	임	1기	No 10	29	연산동 726-6	임	1기	No 29
16	연산동 726-7	임	1기	No 16	30	연산동 726-6	임	1기	No 30
17	연산동 726-7	임	1기	No 17	31	연산동 726-6	임	1기	No 31
18	연산동 726-7	임	1기	No 18	32	연산동 726-6	임	1기	No 32
19	연산동 726-7	임	1기	No 19	33	연산동 726-6	임	1기	No 33
20	연산동 726-7	임	1기	No 20	34	연산동 726-6	임	1기	No 34
21	연산동 726-7	임	1기	No 21	35	연산동 726-6	임	1기	No 35
22	연산동 726-7	임	1기	No 22	36	연산동 726-6	임	1기	No 36
23	연산동 726-7	임	1기	No 23	37	연산동 726-6	임	1기	No 37
24	연산동 726-7	임	1기	No 24	38	연산동 726-6	임	1기	No 38
25	연산동 726-7	임	1기	No 25					
26	연산동 726-7	임	1기	No 26					
					합 계	38기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726-33번지 포함

4.개장시유 : 목포기상대 관측 장소 확장 사업 구간에 분묘 편입
5.개장 후 인치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 천일추모공원
* 인치장소는 인치소의 사정 및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가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하여 10년간 남달림에 안치
7.신고 처 :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목포시 연산동 726-3) ☎061-274-3066
8.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사실 확인서, 제적등본 등
9.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지분(연산동 726-6, 726-7, 775-30, 775-31, 775-33)내에 분묘의 함몰, 훼손 등으로 확인되지 않아 추가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본 공고로 가림하여 처리함.

제3기 결산 공고

재무상태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 유 동 자 산	935,331,764	부 동 채	5,944,799,654
(1) 당 좌 자 산	891,475,799	1. 매 입 채 무	33,909,416
1. 현금및현금성자산	22,539,899	2. 단 기 차 입 금	730,000,000
2. 매 출 채 권	576,808,998	3. 유 동 성 장 기 부 채	3,963,740,000
(대 수 송 당 금)	(4,640,898)	4. 미 수 금	755,352,129
3. 미 수 금	80,920,980	5. 선 수	400,000,000
4. 단 기 대 여 금	170,000,000	6. 예 수	6,347,982
5. 미 수 수 익	7,659,315	7. 예 수 부 가 가 처 세	44,488,566
6. 선 급 비 예	34,153,363	8. 미 지 급 비 용	10,961,561
7. 유 동 성 장 기 예 잔	4,034,142	8. 비 유 동 부 채	243,737,490
(2) 외 자 산	43,855,965	1. 퇴 직 금 여 충 당 부 채	244,227,990
1. 제 조 품	3,743,965	(국민연금준환금)	(490,500)
2. 자 장 품	40,112,000	부 채 총 계	6,188,537,144
II. 비 유 동 자 산	8,670,893,674		
(1) 유 형 자 산	8,331,139,959	자 본	
1. 토 지	1,725,537,050	I. 자 본	500,000,000
2. 건 물	2,136,021,509	1. 보 통 주 자 본	5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37,599,354)	II. 자 본 잉 여	4,232,607,645
3. 구 축 물	134,540,585	1. 주 식 발 행 초 과 금	4,232,607,645
(감가상각누계액)	(9,435,379)	III. 결 산	(1,314,919,351)
4. 기 계 장 처	4,996,903,857	1. 미 처 리 결 산 금	(1,314,919,351)
(감가상각누계액)	(815,380,405)	자 본 총 계	3,417,688,294
5. 차 량 운 반 구	376,958,045		
(감가상각누계액)	(161,590,753)		
6. 공 구 기 구 비 품	130,297,092		
(감가상각누계액)	(56,039,379)		
7. 건 설 중 인 자 산	110,927,091		
(기 타 비 유 동 자 산	339,753,715		
1. 비 유 동 성 장 기 예 잔	328,753,715		
2. 보 증 금	11,000,000		
자 산 총 계	9,606,225,438	부 채와 자본총계	9,606,225,438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3월 29일

주식회사 전주에너지

대표이사 장 만 천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 3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재 술

중공공인중개사

♣부동산 구함

☆아파트 밀집지역 병 의원

신축부지 약 250평 내외

☆지하철 운전역 인근 광공간

대로면 사옥부지 150평 내외

♣대지.전답.임야

☆광산구 송산동 학동마을 인근

전 5,400㎡(1,634평)

매매가 평당9만원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광산구 송산동 자연녹지

답2,988㎡(904평)

매매가 평당60만원

♣전원주택

☆광산구 오문동97번 시내버스중

점 전원주택(전망좋은)전2.

436㎡ (737평) 매매가 평당 27

만원

충장로에 대항 건물 및

대항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나주 혁신도시의 모든것

솔로몬과 함께 하세요!!

중심상업지역(위치최고·착한가격)

- 대지 108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99㎡ - 매매가 24억2천
- 대지 705㎡ - 매매가 14억5천
- 대지 120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80㎡ - 매매가 26억5천

외 다수물건

근린생활용지(위치최상·착한가격)

- 대지 688㎡ - 매매가 13억1천
- 대지 545㎡ - 매매가 10억7천

외다수물건

점포주택용지(약 100필지 보유)

단독주택용지(약 80필지 보유)

나주혁신도시 인근토지 구함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